

# 한·미 FTA 농축산업 피해 연1조36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농축산부문 연간 생산 감소액이 무려 1조원 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협상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의 경우 관세가 철폐되는 15년차에 연간 3147억원의 생산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미 FTA에 의한 주요 품목별 농업생산액 변화(종합)' 자료에 따르면 연간 생산액 감소액을 5년 단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2005년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미 FTA 5년차에는 4464억원, 10년차에 8958억원,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없어지는 15년차에는 1조 362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이 가장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축산으로 한우가 3147억원, 낙농이 594억원, 양돈이 1874억원, 육계가 996억원, 양봉이 31억원, 기타가축이 155억원 등 무려 6797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수의 경우는 사과가 778억원, 배가 325억원, 포도 764억원, 감귤 658억원, 복숭아 197억원, 기타과수 65억원 등 총 2787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채소 및 특작은 마늘이 49억원, 양파 96억원, 고추 72억원, 과채류 240억원, 인삼 43억원, 기타채소 38억원 등 총 538억원이다.

곡물은 맥류가 32억원, 두류 154억원, 기타곡물 53억원 등 2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영향분석은 한·미 FTA가 2009년부터 발효된다고 전제했으며 이행완료 이후에는 최종년도 감소액이 지속된다고 가정했다.

## 가축 질병에 항생제 대신 '벌침시술' 도입

페니실린의 1200배 이상의 살균작용과 소염작용 있어



▶ 새끼돼지 벌침

시술가축에 대한 항생제 과다투여가 식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의 질병을 항생제가 아닌 벌침으로 고치는 방법이 도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꿀벌의 벌침을 이용해 가축의 질병을 고치는 방법을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를 시작으로 구례와 보성군, 나주시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벌침액의 경우 페니실린의 1200배 이상의 살균작용과 더불어 소염작용 효과

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가축에 벌침을 놓아 기르면 각종 질병의 면역력이 높아져 약품비용 절감과 함께 출하일을 170일에서 163일로 7일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